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업무특성 및 건강수준

정혜선 · 장원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Health and Job Characteristics of Sales and Service Workers in Micro-Enterprises

Hye-Sun Jung · Won Gi Jhang^{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¹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job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of sales and service workers at micro-enterprises.

Methods: Multivariat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ata on respondents to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who were business owners (7,572 persons) or employees (3,317) working in sales or service positions at micro-enterprises.

Results: Among those analyzed, business owners were found to experience worse health conditions than employees. Business owners also differed from workers in terms of job characteristics. More than employees, they engaged in tiring or painful postures that negatively affecte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experience of muscle pain, and experience of depression or anxiety. While employees' health was negatively affected by dealing with angry customers, the health status of business owners was negatively affected even by dealing with ordinary customers.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owners of micro-enterprises were in a more vulnerable state of health rather than their employees. In order to address this, it is necessary to correct work posture and reduce the stresses that come from customers.

Key words: depressive mood, micro-enterprise, muscular pain, self-employed, subjective health

I. 서 론

2020년 초부터 한국에 확산된 COVID-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주체의 하나는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재정적 위기를 맞아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는데(SK, 2020) 법적으로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업체를 소상공인 업체로 분류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를 소상공인 업체에 포함하고 있다(MoSS, 2020).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이 크게 증가하였다(Lim et al., 2008). 이로 인해 OECD 국가 중에서도

*Corresponding author: Won Gi Jhang, Tel: 82-41-570-2482, Fax: 82-2-532-3820, E-mail: wgjhang@gmail.com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31 Suncheonhyang 6-gil, Cheonan, Chungcheongnam-do, 31151, Republic of Korea

Received: November 29, 2020, Revised: December 14, 2020, Accepted: December 29, 2020

© Hye-Sun Jung <https://orcid.org/0000-0002-9808-7217>

© Won Gi Jhang <https://orcid.org/0000-0003-3795-6439>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19년 기준 24.6%에 달하는데, 영국은 15.6%, 일본 10.0%, 독일 9.6%, 캐나다 8.2%, 미국 6.1%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2020).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2019년 기준으로 560만 6천명에 이른다. 자영업자 중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3만 8천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단독으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406만 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72.6%를 차지하고 있다(SK, 2020).

소상공인 중 COVID-19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은 소위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판매 및 서비스업은 자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데(Han, 2015), COVID-19 감염 전파의 우려 속에 국민들의 사회적 활동이 오랜 기간 제한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 사업주인 자영업자와 소상공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과당경쟁에 의한 치열한 생존시장 속에서 창업 후 3년 만에 44.1%가 폐업하고 있으며, 5년 생존율은 30.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Han, 2015).

소상공인의 57.2%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어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에도 취약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Kim & Kam, 2017).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유소견률이 높고(Jang et al., 201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창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Kim et al., 2008)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건강문제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서도 서술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72.6%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병원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Lee & Shin, 2012).

소상공인은 직업건강의 보장범위도 낮은 수준이다(Gunnarsson & Josephson, 2011). 소상공인의 50.7%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Kim & Kam, 2017),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MoEL, 2019) 소상공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으며(Stephan & Roesler, 2010), 시간적 자율성은 있으나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근로자보다 높았고(Protas & Thompson, 2006), 건강문제 또한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mal, 1997). Lim et al.(2008)의 조사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의 65.3%가 중등정도 이상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Joung(2015)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자영업자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주관적인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상공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Kam, 2017).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하여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상공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거나(Lim et al., 2008; Cheong et al., 2016; Lee et al., 2017),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00; Song et al., 2003)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함께 포함한 연구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인식도(Kwon & Chung, 200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를 파악한 연구(Yun et al., 2000)가 있으나, 업무특성과 건강수준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업무특성과 건강수준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사업주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상공인 업체의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업무특성과 건강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서 조사한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한 연구이다(OSHRI, 2017).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를 3단계에 걸쳐 선별한 과정을 통해 10,88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업체의 종사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산업 대분류와 총 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업체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을 적용하여 해당자를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를 선별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사용한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에 따라 판매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를 선별에 포함하되, 이 중 소위 골목상권의 판매 및 서비스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직군은 제외하였다. 즉 판매 종사자(코드 5) 중 매장 판매직(코드 52)과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직(코드 53)은 포함하였으나 영업직(코드 51)은 제외하였으며, 서비스 종사자(코드 4) 중에서는 경찰 소방 및 보안(코드 41)을 제외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코드 42), 운송 및 여가(코드 43) 및 조리 및 음식(코드 44)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 및 그 외 근로자로 분류된 인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이어서 다변량분석방법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고용 사업주와 임금 근로자만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상공업 사업주는 자영업자를 칭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상공업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무급가족 종사자 제외)를 칭하는 것이다.

3. 자료수집

한국근로환경조사(KWCS)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실시한 조사로서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EWCS)와 영국 노동력조사(LPS)를 참고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로서, 1차 조사구 추출과 2차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2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추출방법을 하고 있다(OSHRI, 2017).

본 연구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원시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다.

4. 변수 설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전문대 재학 및 중퇴 포함)로 나누어 이분변수로 분석하였고, 월평균소득은 세금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업무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모두 5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는데,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앉아 있음', '직장 동료나 아닌 고객 등을 직접 상대함' 및 '화가 난 고객 등을 다룸'의 4가지 업무 특성은 해당 조사의 설문 항목을 그대로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설문 항목 중 '사람을 들거나 이동시킴'과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은 작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움직임'으로 분석하였다. 각 업무 특성에 대하여 응답자가 근무시간의 4분의 1 이상 노출된다고 응답한 경우를 노출로, 거의 또는 절대 노출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노출로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에 이 중간의 응답지는 없도록 답가지가 구성되어 있다.

건강수준은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대상자가 인지한 건강증상 경험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리학적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신체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총체적 척도로 활용되는 지표이다(Shin & Kim, 2007).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 시점에서 진술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 긍정적 건강상태를 높은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증상 경험은 과거 12개월 동안 근육통을 경험한 경우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 경우를 지표로 사용하여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모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근육통 경험' 변수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중 1개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여 '있다, 없다'의 이분변수로 만들었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 변수 역시 '우울감' 또는 '불안감' 경험자를 같은 방식으로 합하여 이분변수로 만들었다.

5. 자료분석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수준 및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두 군을 분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두 군의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x^2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두 군의 건강수준(주관적 건강상태, 근육통 경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사용하여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version 25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10,889명이었으며, 이 중 사업주가 7,572명으로 65.7%를 차지하였고, 근로자가 3,317명으로 28.8%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사업주의 경우 남성이 34.0%이었고, 여성이 66.0%이었으며,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24.5%, 여성이 75.5%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ales and service workers in micro enterprises				x^2 / t^*	p
		Business owners (7,572)		Wage workers (3,317)			
		n	(%)	n	(%)		
Population characteristics							
Sex	Men	2,573	(34.0)	813	(24.5)	96.551	<.001
	Women	4,999	(66.0)	2,504	(75.5)		
Age		51.84±10.98		41.16±14.11		38.763	<.001
Education	Vocational college graduates or more educated	2,284	(30.2)	1,124	(33.9)	14.677	<.001
	High school graduates or less educated	5,273	(69.8)	2,189	(66.1)		
Monthly income	3,000,000KRW or more	3,222	(43.3)	208	(6.3)	1430.601	<.001
	Below 3,000,000KRW	4,218	(56.7)	3,074	(93.7)		
Job characteristics							
Tiring or painful positions	Involved	4,007	(55.9)	1,770	(53.4)	0.178	.673
	Not involved	3,562	(47.1)	1,546	(46.6)		
Moving heavy loads or people	Involved	3,501	(46.2)	1,505	(45.4)	0.713	.399
	Not involved	4,069	(53.8)	1,812	(54.6)		
Sitting	Involved	6,466	(85.4)	2,324	(70.1)	349.845	<.001
	Not involved	1,102	(14.6)	992	(29.9)		
Dealing directly with customers	Involved	6,818	(90.1)	2,834	(85.5)	48.581	<.001
	Not involved	752	(9.9)	482	(14.5)		
Handling angry clients	Involved	2,389	(31.6)	1,115	(33.6)	4.478	.034
	Not involved	5,177	(68.4)	2,200	(66.4)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xperience of symptoms							
Subjective health status		3.65±0.67		3.83±0.65		-12.986	<.001
Muscular pain	Yes	2,769	(36.6)	874	(26.3)	108.584	<.001
	No	4,799	(63.4)	2,443	(73.7)		
Anxiety or being depressed	Yes	416	(5.5)	103	(3.1)	29.072	<.001
	No	7,146	(94.5)	3,212	(96.9)		

* Pearson Chi-Square or t

다($p < .001$). 평균연령은 사업주의 경우 51.8세, 근로자의 경우 41.2세로 사업주가 더 높았다($p < .001$). 교육수준은 사업주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30.2%, 근로자의 경우 33.9%로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p < .001$). 월소득은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43.3%이었으나, 근로자는 6.3%에 불과하였다($p < .001$).

대상자의 업무 특성을 살펴보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는 사업주의 경우 55.9% 이었고, 근로자는 53.4%로 사업주가 더 많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경우 사업주는 46.2% 이었고, 근로자는 45.4%로 사업주가 더 많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많은 경우는 사업주가 85.4%, 근로자가 70.1%로 사업주가 더 많았다($p < .001$).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 사업주는 90.1%이었으나, 근로자는 85.5%로 사업주가 더 많았다($p < .001$).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사업주는 31.6%이었으나, 근로자는 33.6%로 근로자가 더 많았다($p = .034$).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업주의 경우 5점 만점에 3.65점이었으나, 근로자는 3.83점으로 근로자가 더 높았다($p < .001$). 근육통을 경험한 경우는 사업주가 36.6%, 근로자가 26.3%로 사업주가 더 많았다($p < .001$).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 경우는 사업주가 5.5%, 근로자가 3.1%로 사업주가 더 많았다($p < .001$).

2.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한 Goodness of fit 테스트에서 모든 모형의 Deviance의 Value/df 값이 0.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모형 채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연령이 적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적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화가 난 고객을 다루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3. 건강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건강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Table 2.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sales and service workers in micro enterprises (Generalized Linear Model)

Characteristics	Categories	Business owners (7,419)		Wage workers (3,274)	
		B	p	B	p
Sex (ref: men)	Women	0.234	<.000	0.175	.062
Age		-0.041	<.000	-0.048	<.000
Education (ref: vocational college or more)	High school or less	0.414	<.000	0.037	.652
Monthly income (ref: 3,000,000KRW or more)	Below 3,000,000KRW	0.382	<.000	0.273	.076
Tiring or painful positions		-0.178	<.000	-0.195	.011
Moving heavy loads or people		-0.163	.001	-0.185	.017
Sitting		0.175	.008	0.248	.002
Dealing directly with customers		-0.327	<.000	0.152	.150
Handling angry clients		-0.095	.068	-0.244	.002
Model - Goodness of fit: Deviance(Value/df)		0.553		0.52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symptom experience of sales and service workers in micro enterprises (Generalized Linear Model)

Characteristics	Categories	Muscular pain (No symptom experience)				Anxiety or being depressed (No symptom experience)			
		Business owners (7,415)		Wage workers (3,275)		Business owners (7,410)		Wage workers (3,273)	
		B	p	B	p	B	p	B	p
Sex (ref: men)	Women	0.506	<.001	0.530	<.001	0.107	.360	0.266	.372
Age		-0.028	<.001	-0.043	<.001	-0.014	.012	-0.017	.040
Education (ref: vocational college or more)	High school or less	0.322	<.001	0.107	.293	0.104	.451	0.112	.649
Monthly income (ref: 3,000,000KRW or more)	Below 3,000,000KRW	-0.044	.421	0.043	.828	0.059	.595	-0.289	.495
Tiring or painful positions		-0.946	<.001	-0.859	<.001	-0.349	.002	-0.785	.001
Moving heavy loads or people		-0.217	<.001	-0.226	.014	0.036	.744	0.115	.599
Sitting		0.311	<.001	0.429	<.001	-0.049	.753	-0.251	.291
Dealing directly with customers		-0.579	<.001	-0.220	.081	-1.038	<.001	-0.113	.716
Handling angry clients		0.172	.003	-0.046	.630	-0.269	.014	-0.085	.704
Model - Goodness of fit: Deviance(Value/df)		1.197		1.037		0.519		0.338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한 Goodness of fit 테스트에서 모든 모형의 Deviance의 Value/df 값이 1.2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여 모형 채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속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교가 용이 하도록 증상 경험이 없는 경우(건강수준이 좋은 경우)가 양의 계수를 갖도록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주의 근육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소득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적은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근육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적은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

을 다루지 않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사업주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적은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고,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고,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적은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고,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업무특성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판매 및 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특성은 여성이 66.0%로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75.5%로 남성보다 3배 이상 더 많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어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주의 평균연령(51.8세)은 근로자의 평균연령(41.2세)보다 높았는데 이는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사업주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30.2%, 근로자의 경우 33.9%로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Choi & Jung(2007)의 연구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연령은 높으나, 교육수준은 낮다고 하여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월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업주는 43.3%이었으나, 근로자는 6.3%에 불과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Kim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음식점을 창업할 때 소득증대 효과가 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가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자영업 운영을 통해 월소득이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소상공인의 업무특성을 살펴보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5% 수준이었고,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경우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45% 수준이었다. 앉아 있는 자세는 사업주가 85.4%, 근로자가 70.1%로 나타나 사업주가 앉아 있는 자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Jung(2019)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에서 피로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41.5%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소상공인이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Hwang et al.(2011)은 판매업 종사자의 작업을 분석한 결과 '검수-정리-손질-진열-대기-운반-청소-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나 통증이 발생하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상공인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90.1%, 근로자가 85.5%로 사업주가 더 높았지만,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고객응대를 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객응대 중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는 사업주 31.6%, 근로자 33.6%로 근로자가 조금 더 높았다. Kim(2015)의 연구에서도 판매직에서 감정부조화를 경험한 경우가 38.4%로 나타나 사무직의 1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정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응답은 사업주보다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근

로자의 감정노동을 더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소상공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업주의 경우 5점 만점에 3.65점이었다. 2014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년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Cheong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3.60점으로 보고 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3.83점으로 사업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Shin & Kim(2007)의 연구에서도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Kwon & Kim(2019)의 연구에서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영업자의 건강이 임금근로자의 건강보다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Parslow et al., 2004).

소상공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n & Lee(2009)의 연구에서 자신의 근무환경이 유해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피로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등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ong et al.(2016)도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상공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변수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났고, 근로자는 화가 난 고객을 다루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이처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근로자들이 단지 고객을 대하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고객을 대할 때 힘들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업주보다 근로자가 화가 난 고객을 더 많이 응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에게서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근로자를 위해 화가 난 고객의 대처에 대한 제도적,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상대한다는 응답이 90.1%로 근로자보다 높아서 고객상대 자체가 사업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객을 상대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소상공인의 근육통 경험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36.6%, 근로자가 26.3%로 나타나 사업주가 근육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율이 어깨 부위 34.1%, 목 부위 24.0% 등으로 나타나 제조업 근로자와도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Kim & Jung, 2004).

근육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통의 경우 작업자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Kim & Jung, 2004)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로나 통증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업 장소에 의자 등을 비치하여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노동과 관련된 변수는 근로자에게서 근육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주에게서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근육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근육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스트레스나 사회 심리적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Jung et al., 2008; Lee et al., 2017; Eum & Jung, 2014) 본 연구대상자인 소상공인 사업주도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육통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근육통 증상이 적게 나타난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Oren (2012)은 자영업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이 높아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상공인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5.5%, 근로자가 3.1%로 나타나 사업주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won & Kim(2019)의 연구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저하된다고 하였다. Lim et al.(2008)은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의 65.3%가 중등정도 이상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대상자보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므로 향후 소상공인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육체적 피로도가 정신적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e et al., 2011).

감정노동과 관련된 변수는 근육통 경험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주에게서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경우,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와 비교할 때 감정중심적 대처가 아니라, 문제중심의 대처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Schonfeld & Mazzola, 201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나 건강증상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건강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심혈관질환을 비교한 Jang et al.의 연구에서 자영업자가 심혈관질환이 더 많다고 하였고, 그 원인이 사업장의 건강관리 시스템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사업주의 지위

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산업보건체계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나 건강증상 경험이 더 높다고 하여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를 느끼는 비율,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등 여러 항목에서 대규모 사업장이나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는 응답자의 55% 가까이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하였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주관적 건강상태, 근육통 경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사업주의 90% 이상이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사업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근육통 경험,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세를 바로잡고 고객으로 부터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판매 및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로나 통증 유발 자세 및 고객응대관리 방법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근육통 경험 및 우울감이나 불안감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종속변수의 특성이 연속형과 이분형으로 달리 되어 있어 통일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GLM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변수의 경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면 좀 더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연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유의확률이 차이가 있게 나타났는데,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표준화 베타값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요인이 각 그룹에 미치는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는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에 의한 관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소상공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상공인의 업무특성과 건강수준이 취약하므로 소상공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소상공인은 혼자 일하거나 적은 인원 수가 일을 하고 있어서 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장을 비울 수가 없는 형편이므로, 접근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는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하여(Lee et al., 2017) 근로자건강센터 및 국고지원 보건관리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하여 피로 및 고객응대관리 등에 대해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인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2017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업주 7,572명(65.7%)과 근로자 3,317명(28.8%)이었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업체의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중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업무특성 측면에서도 근로자와 차이를 보였는데,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업무를 사업주가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이런 자세는 주관적 건강상태, 근육통 경험, 우울 및 불안 경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에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업체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보다 건강이 더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업무 자세를 바로잡고 고객으로 부터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매 및 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 HG, Lee BH. A study on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factors of industrial workers. *JKDAS* 2009; 11(6):3023-3040
- Cheong SJ, Lee SW, Cho JY.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of the micro scale business owner at middle age. *KJGSW* 2016;71(4):91-118 DOI : 10.21194/kjgs.w.71.4.201612.91
- Choi EH, Jung HS. The effects of job stress, fatigue, and health and safety services on health issues of male manufacturing workers. *JKSOEH* 2019;29(2): 226-235 <https://doi.org/10.15269/JKSOEH.2019.29.2.226>
- Choi KS, Jung JH. Gender differentials in earnings: A comparison of the self-employment and paid-employment sectors. *Korean Econ Rev* 2007;5 5(4):217-241
- Eum MJ, Jung HS. The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symptoms of male taxi driver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4;23(4):227-234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4.227>
- Gunnarsson K, Josephson M. Entrepreneurs' self-reported health, social life, and strategies for maintaining good health. *J Occup Health* 2011; 53(3):205-213 DOI: 10.1539/joh.110017
- Han JS. Support project evaluation for the self-employed. Seoul;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5. p.13-66
- Hwang J, Lee I, Kim H, Jung-Choi K, Bahk J, Jung M. Analysis of task and postures of retail grocery store workers. *IE Interfaces* 2011;24(4):387-395
- Jamal M. Job stres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elf-employed and non-self-employed Canadians. *J Small Bus Manag* 1997;35:48-57
- Jang KH, Park WJ, Kim MB, Lee DK, Chae HJ, Moon JD. Comparison of cardiovascular disease status between large scale industry office and self employed male workers. *KJOEM* 2011;23(2): 130-138
- Joung SH.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job attitud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self-employed workers. *JCC* 2015;18(1):135-153
- Jung HS, Yi Y, Kim SI, Lee JE, Lee SY, Yang KM, Kim SL.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ubjectiv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8;19(3):388-397
- Kim H. Emotional labor and health among working women. *Ewha J Gender and Law* 2015;7(1):33-50
- Kim HG, Nam HK, Yun SN. A study on the effects of alcohol-reducing program applied to works under 5 employe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00; 9(2):132-142
- Kim HJ, Jung HS. Related factors of upper limb musculoskeletal disease in small-to-medium-sized manufacture enterprises worker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04;13(1):19-29
- Kim SH, Kam HK. Social safety net study of small business person. *J CEO and Manag Stud* 2017; 20(1):69-87
- Kim K, Hwang J, Ryu Y.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Focusing on economical or non-economical effects. *The Women's Stud* 2008; 74(1):105-138
- Kwon M, Kim SA.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wage worker and self-employed. *J Korea Conver Soc* 2019;10(9):333-342 <https://doi.org/10.15207/JKCS.2019.10.9.333>
- Kwon OS, Chung CK. The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employers and employees regarding occupational health among industry with less than 5 workers. *Korean J Occup Health* 2001; 40(3):87-98
- Lee GC, Ha TK, Lee JH. Effect of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on the stress or fatigue - Hotel culinary employees. *JFM* 2017;20(4):225-248
- Lee JH, Jung HS, Lee HJ. The impact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the warehouse employees's work-related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7;26(3): 133-141 <http://dx.doi.org/10.5807/kjohn.2017.26.3.133>
- Lee KS, Kang JS, Kwon IS, Cho YC. Influence of sleep quality, occupational stress and fatigue on depression among small-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JKAIS* 2011;12(5):2230-2240 DOI: 10.5762/KAIS.2011.12.5.2230
- Lee SJ, Lee TW, Kim S. Predictors of hypertens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self-employed workers: Results from a baseline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7;26(4):247-260 <http://dx.doi.org/10.5807/kjohn.2017.26.4.247>
- Lee SY, Shin HW. On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What should be done to increase their access to health care. *Health Welf Policy Forum* 2012; 194:62-73
- Lim JS, Lee HJ, Cho AR.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 ha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the Self-employed: Focused on the small scale self-employed of Sunnam-city. *Family and Culture* 2008;20(3):1-27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2018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status.; 2019. p.14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2020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7
- OECD.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2020. [Accessed 2020 Nov 29] doi: 10.1787/fb58715e-en
- Oren L. Job stress and coping: self-employed versus organizationally employed professionals. *Stress and Health* 2012;28:163-170 DOI: 10.1002/smi.1418
- Parslow RA, Jorm AF, Christensen H, Rodgers B, Strazdins L, D'Souza RM. The associations between work stress and mental health: A comparison of organizationally employed and self-employed workers. *Work & Stress* 2004;18(3): 231-244 DOI: 10.1080/14749730412331318649
- Prottas DJ, Thompson CA. Stress, satisfaction, and the work-family interface: A comparison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independents, and organizational employees. *J Occup Health Psychol* 2006;11(4):366-378 DOI: 10.1037/1076-8998.11.4.366
- Schonfeld IS, Mazzola JJ. A qualitative study of stress in individuals self-employed in solo businesses. *J Occup Health Psychol* 2015;20(4):501-513
- <http://dx.doi.org/10.1037/a0038804>
- Shin SC, Kim MC. The effect of occupation and employment status upon perceived health in South Korea. *Health Soc Sci* 2007;22:205-224
- SK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Number of employed by job Status. 2020. [Accessed 2020 Nov 25];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SK. Standard statistical terms and indicators. 2020. [Accessed 2020 Nov 2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index.action?bmode=language&keyWord=0
- Song GT, Park CY, Roh YM, Koo JW, Chang KS.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on general and occupational health of the employees in small scale industry with less than 5 workers. *Korean J Occup Health* 2003;42(1):10-20
- Stephan U, Roesler U. Health of entrepreneurs versus employees in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J Occup Organ Psychol* 2010;83(3):717-738
- Yun SN, Jung HS, Lee BI, Lee HJ, Lee HJ, Kim HJ. Perception and ne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00;9(2):121-131

<저자정보>

정혜선(교수), 장원기(교수)